(再刊) 朝鮮日報 檀紀四千二百七十九年八月十七日 THE CHO SUN IL BO 조선일보 (土曜日) (1946. 8. 18 許可第二十五號) (1941. 12. 20 第三種郵便物認可) 第七千一百三十二號

印刷人 編輯局長 發行人 方應謨 ... 京城府太平通一丁目 發行所 朝鮮日報社 定價月 ... 圓

朝鮮日報

社說 同胞여 들었는가

一. 十五朝美共同主催 平和·解放記念席上에서 行한 朝鮮駐屯美軍最高指揮官 하―지中將의 演說은―「美國은 朝鮮을 植民地化하거나 搾取하거나 恒久的軍事根據地化하랴는 意思는 全혀 없다 우리의 唯一한 關心은 自由로 發表된 朝鮮民族總意에 依한 朝鮮政府下에 統一獨立한 國家를 再建하려는데 있다」는 一節로써 結論을 삼었다。 또 同席上 同中將에 依하야 朝讀된 太平洋方面美軍最高司令官 매아더元帥의 「멧세―지」는 「나는 確信을 가지고 健全恒久한 經濟的基礎우에 自由獨立한 朝鮮이 樹立되리라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 앞으로 이것을 實現시키기 爲하야 나는 내 힘 안에 있는 모든일을 다하려고 한다」는 一節로써 結語를 삼었다。

二. 同席上 金九先生은 悲壯慷慨한 演說로써 今後 우리民族의 進路를 端的으로 表示하였는데 그 一節에 가로대―「同胞여 나는 付託하노니 첫째 美軍政에 阿諛하야 자말라 謀利를 일삼는다든가 私利와 私慾에 눈이 어둡다든가 하야 自立과 民族의 福利에 背叛한다면 우리에게 公約된 獨立은 우리의 눈앞에서 萬里밖으로 다라나게 될것이다。 뿐만 않이라 우리의 祖國을 저바리고 祖國을 이 江山 밖에서 좇이야는 傾向이 이 國土內에 있는듯하니 이는 모두 우리의 獨立을 妨害하는 障壁일것이다 名分과 義理에 어그러진 바를 淸算하고 團結하야 獨立完遂에 邁進할것이며 萬一 肉親이라 할지라도 獨立에 妨害하는 바 있다면 斷然排斥하여야 있는 힘을 마음껏 쏟아서 獨立戰取에 突進하여야 할것이다」하고、三千萬同胞에게 呼訴하였다。

三

親愛하는 同胞兄弟여! 이 歷史的 盛典에서 한 世紀的 부르지즘을 들었는가。 前者는 友邦의 占領軍의 責任者로서 將次 朝鮮獨立의 앞길을 鄭重히 言約한 바다 한 것이오、後者는 우리 指導者의 一人으로서 獨立을 戰取하는 길을 明確히 啓示한 바가 아닌가。 占領軍의 言約이 뚜렷하고 指導者의 啓示가 分明한 以上 同胞여 우리의 갈길은 한가지 않은가。 가자 一齊히 나아가자 獨立戰取의 길로! 外來의 勢力이 우리의 앞길을 막거든 人類公義에 依하야 排除할것이오 內部의 事情이 우리의 앞길을 妨害하거든 民族總意로써 打破할 뿐이다。 오즉한 民族의 獨立은 그 民族의 自力에 依하야만 成就된다는 確乎한 信念으로써 나아가자。

解放一周年記念當해 內外다갓치獨立熱願

十五日軍政廳大廣場에서 朝美合作으로 擧行된 世界平和及解放記念式典에서 行한 「하―지」中將 「아―놀드」少將 「러취」軍政長官 李承晚博士、金九先生 等諸氏의 記念辭內容은 다음과같이 朝鮮獨立의 熱意를 表示하였다。

하지中將

朝鮮民族總意에 依한 統一國家建設을 所望

「美國人은 朝鮮에 對하여 莫大한 興味를 가지고 이곳에서 생기는 모든일에 크게 關心하여 이곳消息을 듣고 있읍니다 그럼으로 美國人은 朝鮮에 만흔 好意를 가지게 되었고 朝鮮의 참된 民主的 獨立에 對한 抱負와 希望과 企待를 充分히 諒解하고 同情하고 있읍니다 어떠한 敎唆를 받은 團體의 聲明이 있음에 不拘하고 美國은 朝鮮을 植民地化하거나 搾取하거나 恒久한 軍事根據地化하려는 意圖는 全혀 없읍니다 우리의 唯一한 關心은 自由로 發表된 朝鮮民族總意에 依한 朝鮮政府下에 統一獨立한 國家를 再建하려는데 있읍니다 나로써 確言할수 있는것은 내 指揮下에 있는 諸將兵이나 美國自體가 朝鮮民族의 獨立에 對한 큰 希望과 渴望을 充分히 알고 있으며 우리들은 이 獨立實現을 爲하여는 어떠한 일이든지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이라면 다 하려고 합니다」(寫眞은 하―지中將)

맥아더大將

滿腔의 同情

나는 朝鮮民族에게 活潑을 주는 그 抱負와 希望을 잘 알고 있으며 그들의 正當한 全民族的으로 憧憬하는 自主統一獨立國家에 對하야는 滿腔의 同情을 갖이고 있다 나는 確信을 갖이고 健全恒久한 經濟的基礎우에 自由獨立한 朝鮮이 樹立되리라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寫眞은 매아더大將)

侵略이 없어야 世界平和維持

世界政治에 [illegible]하고자

李承晚氏

하는것은 强弱國을 勿論하고 各國으로 하여금 公平하게 平和를 維持케할것이며 國際上의 侵略이 없도록하여야 世界平和는 온전히 維持할수 있을것이다

金九氏

祖國은 이 땅뿐

獨立은 他力에 依存하야 되는것이 아니요 오직 自力으로서 自主性을 가춘 獨立이라야 비로소 民族의 安堵와 國家의 永遠한 繁榮을 齎來할것이다 同胞여 美軍政에 阿諛하고 謀利를 일삼는다든가 私利와 私慾에 눈이 眩惑한다든가 하야 自立과 民族의 福利에 背叛한다면 우리에게 公約된 獨立은 眼前에서 萬里外滄海 밖으로 다름질하게 될것이다 뿐만아니라 우리의 祖國을 저바리고 祖國을 이 江湖外에서 차즈려는 傾向이 이 國土內에 있는듯하니 이는 모두 우

러취長官

團結은 힘이다

美國과 朝鮮에는 特히 昨年이래 해에는 여러가지 重大한 事件이 發生되었읍니다 幸福된 事件과 不幸한 事實도 있었읍니다 그러나 朝鮮에는 有名한 愛國者 政治家가 많이 있읍니다 卽 李承晚博士、金九先生、金奎植博士、呂運亨先生、許憲先生 이분들은 偉大한 指導者입니다 이분들을 中心하야 明年에는 偉大한 自由朝鮮國이 建設되여야할것입니다 古來로부터 「團結은 힘이다」라는 金言이 있지안읍니까 團結이 없으면 失敗할것입니다 團結만이 自由와 獨立 또한 統一된 朝鮮을 建設할것입니다

解放一年朝鮮은어데로② 統一은 絶對條件

左右의 政黨과 그 指導群이 웨친다는 것은 어떤 윤인이、一年前 或은 十年前의 固執이다 南北統一과 左右合作 그것만 가지고 제로이 大는 建國의 絶對條件이나 民衆의 例는 關心과 協力으로 衆의 至上命令이거던 指批判의 土臺를 開拓할 導者群은 모름직이 一毅하고 新情勢에 對하야 情勢의 推移에 明斷이 있어야 될나 豫見도 黨內黨外에 討議한다 民衆의 意欲과 그 論될이 없이 合作工作만을 利益의 絶對的인 것이오 그

며고 建國의 擴張이라면 잘것이나 南朝鮮民主議院가 無期停會가 되고 우리을것은 잡고 이겨야 할것의 그것이라 大同小異의 左右合作이 不成功할은 이겨서 統一과 合作에 하며 實際上 技術的折衷 美蘇로서나마 우리의 左右全心함이 있어야할것이다 이 必要한것이 多少있을 指導者나 다가치 再考反보다 南北의 軍政은 어데로 다를것이 없다 天下에 省察이 있서야할것이다。 계어데로 發展하고있는가 公約한 政綱이 그러커던 이에 解放一年에 全民族南軍의 占領期가 遷延되면 全民族이 熱望하는 合作이 的建國革命의 意識을 다民遷延될수록 南北의 合作은 왜 못될까 美蘇의 司令官서 높이 잇거야 하고 面困難하며 그 條件은 國際의 責任과 그 指導로써 各政黨과 政界全體에는 內的制約이 머커갈것이 아 成된 兩國體는 美蘇의 南北外新情勢에 對한 새로운넌가 左右의 政治理念이 統一을 目標로 한 所謂民主 檢討와 自己批判이 잇서한 무엇인가 北朝鮮臨時的要素가 아니었든가 그야만 合作과 統一에로 새로 人民委員會의 政綱이 만 더면서 로 美蘇共同委員會운 進展이 있을것이다(續)

長春非常警戒

【天津十六日發AP合同】一部報道에 依하면 長春中央側當局者는 長春의 緊急非常警戒對策을 實施하고 있는데 이것은 中央側地下運動者들이 大規模的 混亂을 이르키리라는 報道에 因한것이다 이 緊急非常警戒策으로 因하야 今後三日間 通行은 制限될것이다

人類의 自由를 要望

領土、賠償은 바라지 안는다 「번즈」美國務長官演說

【巴里十六日發AP合同】十五日 巴里媾和會議席上에서 「번즈」美國務長官은 다음과 같은 要旨의 演說을 하였다 「萬若 「포쓰담」會議決定에 違反되는 經濟媾和條項이 이번 媾和會議에서 決定된다면 이것은 結局 國家를 奴隸化하고 搾取하는 結果로 될것이다 日前 伊太利의 聲明을 討議할 때에 蘇聯側은 「美國은 戰爭中에 富者가 된 國家이다」고 非難하였으나 내가 아는 限度에서는 富者가 된 國家가 如何한 國家인지 알 수 없다 數多한 非難한 國家中에는 美國이 包含되어 있지 않을것이다 美國은 戰爭中 四兆弗을 聯合國에 附與하였는데 우리는 이에 對한 代價를 要求치 않고 있는것이다 故 「루스벨트」大統領도 美國은 民主主義의 「[illegible]」인 만치 이에 對한 代償은 要求치 않고 다만 全人類의 自由가 樹立될것을 要求하였든 것이다 美國은 領土도 賠償도 要求치 않고 있다 美國은 다만 世界의 經濟的 更生에 援助할 뿐이다 同時에 美國은 世界如何한 國家던지 (互惠的 友好關係를 맺)고 개한다(寫眞은 번즈氏)

人事消息

◇閔泳星氏(和信計劃課長)
◇朴濟植氏(民主日報廣告部長) 人事次來社
◇李鍾洙氏(朝鮮辯理士會々長) 人事次來社

八·一五와 우리는 무엇을 할가 以後의 路線 ⑦

金炯元

病源을 正確히 發見한다면 對症投藥은 아모리 庸醫라도 能히 할수있는 까닭이다。物理學上 「物體의 不可入性」은 心理學上에도 適用된다。一定한 空間에 同一한 容積을 가진 두 個 物體가 同一한 時間에 容納될수 없음과 같이 사람의 心理作用中에도 同時에 두가지 心理가 平等하게 作用할수는 없다 心理보다도 動作으로 보자 밥을 먹는 입으로 반찬을 먹는 것은 누구나 「認定」하는 일이다 그러나 밥을 떠넣는 時間과 반찬을 떠넣는 時間은 絶對로 同時가 될수 없다 이와 마찬가지로 아모리 複雜한 心理를 갖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슬픔과 기쁨을 同時에 作用할수 없을 것은 明確한 事實이다 가령 울다가 웃는 사람이 있다고 하자 이것도 이미 「울다가」가 먼저요 「웃는」 것이 뒤이니 同時라 할수 없을 것이나 그 時間을 極히 短縮식히어 우름과 웃음이고 하면 미친사람이 될것이니 이 미친사람의 行動이라 할지라도 울음과 웃음과의 先後와 時差의 區別이 없지 못할 것이다 장황한 心理論보다도 나는 팔디本論에 들어가야 한다 이때까지 말한 바에 依하야 朝鮮民族의 心理狀態는 外來勢力의 占領한바 되였으니 어떠게 自民族의 精神을 維持할수가 있었을것이나 精神을 喪失한 個人이 얼마나 불상하며 이것은 누구나 다 아는 바이니 精神을 喪失한 民族이 얼마나 可憐하다는 點을 아는 이가 있는가 없는가。

民族心理解剖의 必要

精神獨立없이 民族獨立없다

「自己」 精神을 喪失한 까닭에 或者는 甲의 精神에 살고 或者는 乙의 精神에 놀고 있다。아、이얼마나 두렵고 슬픈 事象인가。 나는 여기서 解放以來 建國大業에 心血을 傾注하여온 政界指導者諸公의 苦心을 無視하라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左右兩翼을 莫論하고 指導者諸公의 앞에 大衆의 한 사람으로서 敬意를 表하고 感謝를 드리라 한다。 諸公도 神이 않인 以上 無意識中에 過誤를 犯하게 된 일도 있었을것이다。 그러나 無意識이라고 해서 過誤를 正當化시킬 수 없고 過誤로 認定한 以上 時急히 批判淸算하는 것이 民族萬年大計를 爲하여 切迫히 要求되는 바이다。 그러면 어떠케 淸算할것인가。

一、政黨은 政黨이 主나 民族이 主나 自問自答하야 主를 좇아 行動할것。

二、個人은 「乃公第一主義」의 過大忘想症을 버리고 「民族」으로 第一主義를 改編할것。

三、事大思想으로부터 오는 奴隷性을 個人이나 政黨에서 몰아낼것。

四、그리하야 民族精神을 다시불러드려 民族이 主人이 있는 自主國家를 創建하고 獨立을 完遂할것。

五、獨立하기前부터 他力依存外交를 버리고 自力自主外交를 樹立할것。

以上몇가지를 實行하기만 한다면 所謂民生問題의 見解로 因한 左右의 區分은 있을지 모르나 獨立運動에 있어서만은 左右가 있을수 없는 일이다。 左右가 없이 民族全體가 合하야 民族獨立에 努力한다면 如何한 國際的制約이 저지게 되고 政治的葛藤이 일킨다 할지라도 우리의 進路를 막을 者가 없을 것이오 우리의 「所望」은 成就되고야 말것이다。

그러나 歷史的傳統의 精神을 一朝一夕에 喪失한 民族精神을 우리의 앞에 노흔 오늘 도로 차저드리느냐 하는 것이 重大한 課題이다 이 課題를 解答하느냐 못하느냐에 依하야 우리民族存亡의 岐路가 될것이니 特히 指導者諸公의 憂族愛國의 血誠에 依하야 具體的解答이 時急히 明示되기를 切願하며

◇附記=三八度以北의 政界動向에 對하야는 그 眞相을 把握하기 困難한 實情에 鑑하야 批判을 保留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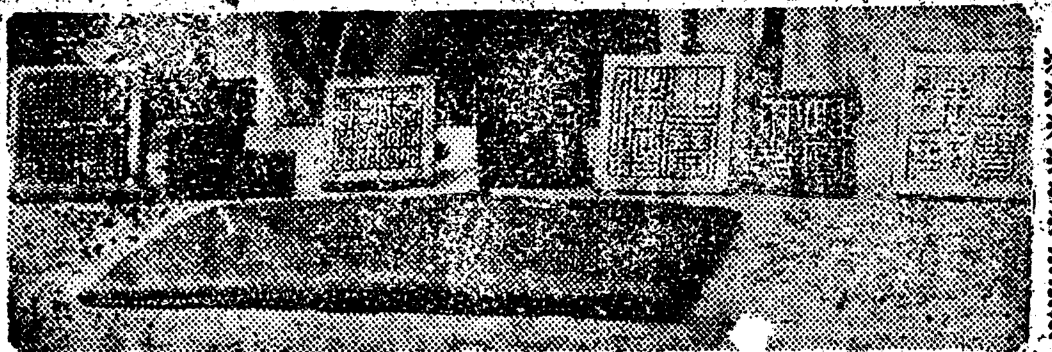
京城府麻浦區桃花町一六九番地
漢江木材株式會社
社長 李肯夏
專務取締役 劉永籍
常務取締役 李康泰
電話龍山一五五六番

京城府本町一丁目二八
各種로―푸 테―프商
韓一商會

解放一週年記念

京城府鍾路區鍾路二丁目八二
革新商工株式會社
取締役社長 邊相昊
專務取締役 朴文壽
取締役總務部長 孫世遠
取締役營業部長 金基勳
取締役總務部次長 李英鉉
取締役 趙善用
取締役 朴斗東
監査役 孫琪遠
監査役 李壽鎬

給水 衛生 煖房 請負
京城府西大門區竹添町二丁目一五七
金華工業社
社長 林昌冰
電光一八一五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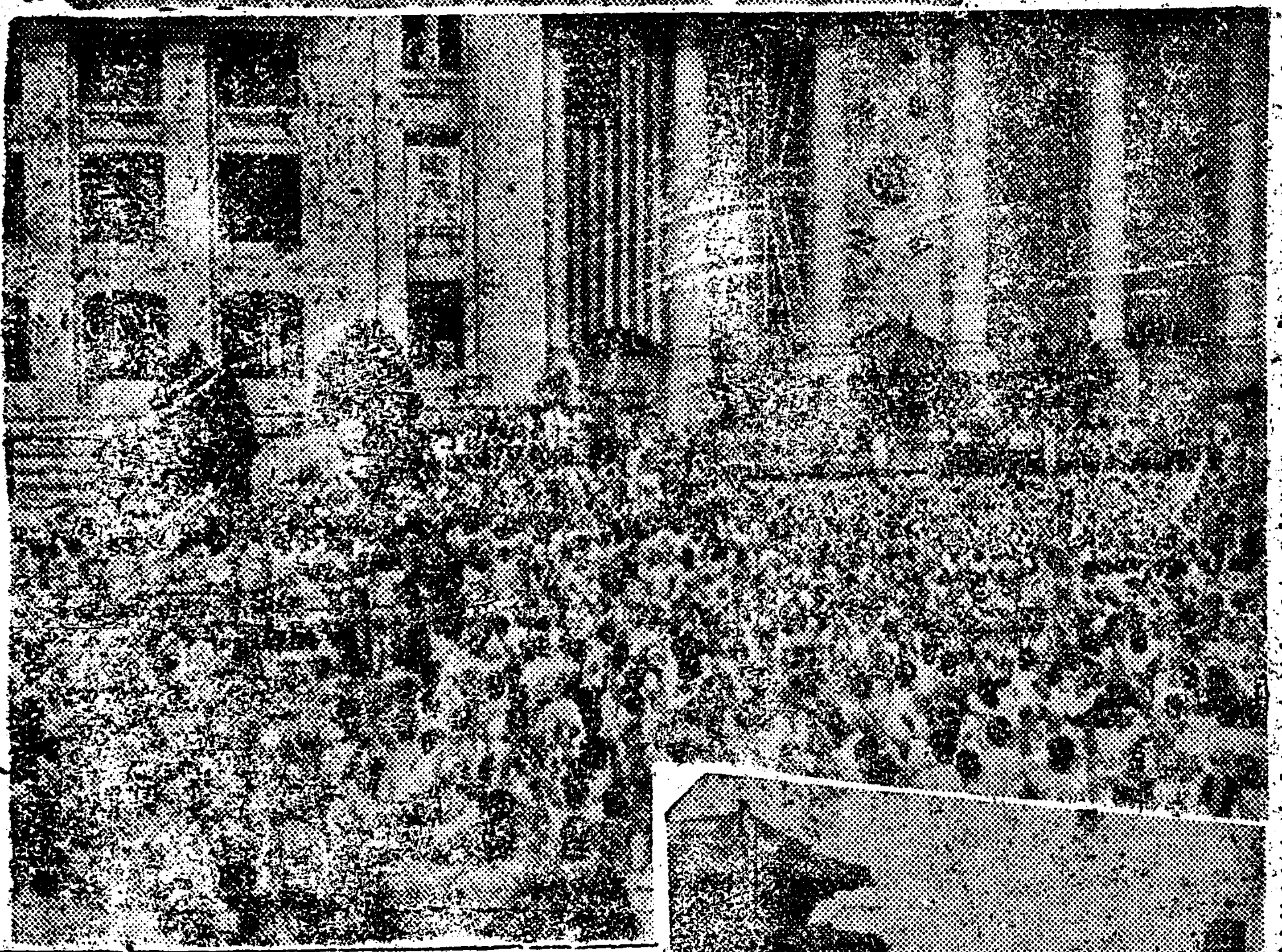
사진은 三十七년만에 찾아온 옥새와 조약문

平和와解放의名節八·一五

우리는悔悟와反省속에맞다!

三천만의 마음 한데 이게 하는 八·一五 세계 평화 및 해방의

기온서 번약十五만이 참가한 가운데 군정청 넓은뜰에서 오전九시경 시여앞 울며나 치가를 행진하 포식장에들 어온각 단체의 정렬이 끝나자 정오부터 오세창(吳世昌)씨의 사회로 식이시작되었다(사진中)은 군정청기념식장(下)는 세가행진의 장사진



朝美同慶交響樂

軍政廳廣場의慶祝式典莊重

구듬한점없이 개인 장군으로부터의 기념사당개보내는 화환전정과 시내에는 여름의하날에 우렁차게 곡과 로곧잦어온「명한자여라생들로조직된 한스코운 우슴 울리는 교려꼬향악단의 조약서」와 八개의 국새 장단의기념가로서 제一 자아홉시 주악에이어서 애국가봉(奉唱)을뢰장인 오세창 부를 끝마치고 제二부 명부대 장은 끝마치자 오늘의장 재에게 반환하는간 으로들어가「四대국원수와 두고 기념행사를하게만들어준 만한식이있었다 다시기념사 순서로서 는「옛세이아미」장군에게보내 변군의순으로 연합국에대한감사를백상 규(白象圭)씨로부터유「아―놀드」소장「러―취」 軍政長官 李承晩씨 金九씨 서정희(徐廷禧) 부장이어 장한영어로말하였고 연취」군정장관 이승만(李承晩)박사 김구(金九) 합국국가 연주가있은후 「하―지」씨등의 열렬한기념사가 기념사로들어가「하―지」장군에 당한후 씨의 결의문낭독 김 중장의연설과「매아던」을나지「하―지」장군에 구씨선창의 만세三창으로 식은오후二시쯤 끝났다

오세창(吳世昌)씨의 사회로 ...

獨立戰取의大行進

群衆、興奮속이고沈着

감격한해방기념식전에 뒤를이어 물려는다 행고 웅성거리는사람 물 또나모다같이 참가하여 사회비위원들은 연二층 시절속에는 파연해방을 이날을 하하며는 단체에「모드·스피카―」를 상징하는 형형색색으로 와군중은 예정한장소인 내결고 행렬편성과 一가장한「꽃수레」가 오 서울역에 일은아침부터 중지휘에 밤을흘리고있고 가고 사람들의 낮낮 이지 나는 행렬의 각

수많은 단체에 향하여 一一히 거 한 우슴을띠우며 만세 를 부르짖으며 행렬이 시 황금정(黃金町) 입 구를지나 종로(鍾路) 에거리에서 굴오 광 화문통(光化門通)으로

完全獨立促成에

民族戰線 記念行事

이날 민주주의 민족전선(民主主義民族戰線)주최의 기념식은 서울 운동장에서 거행되었다 식은 상오九시 김광수(金光洙)씨 사회로에 하여 군정청앞 마당에 이르기까지 무룻세시간이나걸렸으니 문자그대로 장안은 인산인해로 화하였다

나라를 찾은 기쁨... 그러나 조선의 독립은 진심으로 ... 자유와 독립을 갈망하는 대중과 명 화와 자유를 애호하는 국가로서는 이날을 영 원히 기념하지 않으면 안될것이다 과거 일년 간은 우리민족사상 에있어 민주주의 세력이 비약적으로 발 전된시기이다 우리는 민주주의 강령을 실천 하야 완전독립을 촉 성해야만되겠다

八월十五일은 민주주 의 연합국의 일본에 대한 승리의 날인 동 시에 우리민족으로서 는자유와 독립의 문이 열린날이다 그러나 조

찬(許憲) 다음 임시집행부선거에 있어 여운형 허헌 박헌 영 김원봉 백남운 등五씨 를 명예회장으로 하고 집행위원을 유영준 허 성택 등十씨를 선정한뒤 의 지난一년동안의 민주주 의 세력발전에 대한 보고가 끝나자 홍남표 유영준 오지영

후 민주독립만세를 부르게 三창하고 기념식을 끝내이고 시가행진을 시작하였다

결의문요지는 (一、 土地改革 重要産業國有化 進步的勞働法令等의 實施 婦女同權 言論集會 結社 信仰에 對한 自由保障要求 一、美蘇共同委員會 再開 促進과 南北統一 民主主...)

在日同胞金部에送還令

每日四千名式釜山에輸送

동경에서 드러온 소식 에 의하면 연합국 사령부 는 일본에 머물러있는 조선인 송환이 우려공포의 종환기간인 본정부에 대하여 九월三十일로 연장하였다 十一월十 五일로 연기하였다는데 그원인은 조선 수해와 귀국자 전부를 구주 하카다(九州博多)로 부터 매일四천명식 부산으로 보내라 지시하였다

12月부터쌀만二合五勺

秋收穀收集에萬全·配給을內定

군정청의 계획하였고 경우에 따라서 시일할것도없이 하곡수집은 이보다도 좀더 느지질 일부터 다음해八월一일 계획은 뜻지 모든다는것이 중앙식 까지 팔개월간 소선사람 하지않었 당행정처의 견해다요지 에게 필요한 쌀을 확보하 든 물난리 유난히 가 좋아서금년 추려고 철저한 수집에 중점 으로인하야 수는 대체로 풍작이 예상 을 둔것인데 쌀배급량의 형편 물 그어 되고있는데 작년가운데 최저가준은 한 사람에게 하는 어 터 풍년이 들고도 주더은 二〇〇흡 즉 팔개월간 하 는 징도 일반은 얼마전 군정청에서 二合五작의 계획을 세 였어도 수 시 발표된 식량규칙 제二 호인것이다 일부 공업지 도 실시에 대하여 큰관심을 갖고 시대에 미국수 집에는 부족 하고 교통수 난은 하 다 이 번 규칙은 다 기술적으로 곤란하고 는 대 자 한 때 이를 고 二十六일로 뒤 변호고 있는다 대단히 곤 란하였든 이 당 하였느니만 치 곡 통 개 회 이

종관계로 十六日부터 실시하려든 시배의 자곡배급계획이 그운영에 주의를 모르기 위한것이다

農家에선 協力하라

금년도 미곡정책의 성 불성은 곳 군정기구의 운영적을 취정할수있는 「바로메―터」가 될것 으로 당면한 식량문제 와 신곡수집에 관하야 중앙식량행정처 지용은 (池溶殷)조선인 처장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하곡즉 보리배급은 수 송이 원활치못하야 다 소늦게되는데 二十六 일부터 밀가루(二二 〇그람)一홉과 잡곡 一홉으로 二홉식량은 틀림없이 배급될것이 며 보리가 드러오는 대로 곳 이에 대체

(代替)될것이다 미 곡수집은 지금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이것 이 순조로가면 十一 월말 내지十二월초부 터는 쌀배급량만 二 홉五작이 확실할것으 로 보고있다

米穀收集令

②中央食糧規則二號

【다】收集所 府尹 郡守 供出證三通式을作成함 此 及島司는 一定한倉庫 供出證의考案 印刷와各 를 米穀收集所로指定할 收集所에의分配는生活必 此倉庫는 火災及盜難에 需品管理局의責任임 此 對하여適當히 防護되여 供出證의印刷及 分配費 있고 申請할수있는限 用은 生活必需品管理局 生産地의中心地에 位置 에서負擔하며 朝鮮政府 한適當한場所이여야함 가此를 補償함 以上收集 【라】供出證 米穀收集 을一九四六年九月十五日 所에서는 供出者에게 부터始作할수있도록準備 附하기爲하여 不融通性 을完了할을要함 (계속)

解放記念 國際講演

해방일 주년의 기념사업으로 조선국제문화협회(朝鮮國際文化協會)에서는 국제친선과 외국의 여론을 소개하고저 에이·피(A·P) 유·피(U·P) 아이·엔·에스(I·N·S) 「뉴―욕·타임스」등의 서울있는 외국특파원을 망라하고 해방기념국제강연회(解放記念國際講演會)를 十七일오후二시부터 서울중로 기독교청년회관에서 열기로 되였다

致々勉學 國家棟樑되라

「學徒諸君에게告함」

八·一五記念日에 兪文敎部長訓辭

문교부장 유억겸씨 는해방一주 년을맞이하 에있어 학도제군은 오로지힘을몸아 학

과 잘이말하였다 다음 학창에서 수학하 는 제군은 장래의국 가운담당경영 하는 이로서 이제우리나 다른 전전히경영할 에 가장필요한지식 과 기술을길르기위 하야 각종학문을닦 고있는이들이다 그

현今제군은 이날을 기념함에 당하야 방히만을을 오로지 하고 힘을올아서 문을닦기에만전념할 것은 즉제군의 절실하여 야할것이다 이외의 모든문제는 제군의 지금 우리나라에서 관심할바가 아니다 는 바로바레계군들이 완성한인격으로 학 업을 마치고나와 이 나라를 말아맡다고 로세계평화에 공헌을 하여받다고 기 다리고있는줄을 명 기하여야 할것이다 (사진은 유문교부장)

裁判長忌避 抗告를棄却

獨立하자(外十四項目)

정판사(精版社) 위조지폐사건에대하야 변호인측으로부터 재판장의 기피를신립하여 각하를 당하고 지난十일다시 항고(抗告)를신립하였음은 이가보하였거니와 十三일경성공소원 형사부에서는 재판장 유영(柳瑛) 판사 김우열(金又悅) 판사 김윤근(金潤根) 배석으로 심리가 있었는데 법정해석의잘못 이 없고 재판장의 일방한 사실 판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없다고 불만한소명(疏明)이 없다 그러므로 기피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항고는 원결정은 정당하고 항고는이유가 없음으로 형사소송법 제 四六二조 제一항으로적 용하야 항고를 기각하기로 결정하였다

曆 十七日(土曜) 陰二十一日 干支 癸亥

△日出 午前五時五〇分 △日入 午後七時二五分 △月出 午後一〇時六分 △月入 午前九時五七分

【晝】△一一·三〇 日用品時勢(서울) 【夜】△五·〇〇時 報 뉴―스 △五·一 五 國語講座 金允經 △五· 三〇 어린이시간 △七·〇〇時報 뉴―스 △七·三〇 軍政廳時間 △八·〇〇 유―모아小說「入生案內」 △八·一五 京觀歌謠 金香蘭 李蘭珠 △八·三〇 連續野談(二) 吳蔣根「韓末秘史」

補缺生募集

高級中學一學年 農業科·畜産科·土木科

入學願書受付期日 八月二十八日까지
受驗期日 八月二十九日―三十日
受驗資格 初級中學三年修了者

京城公立農業學校

謹告

解放直後不幸히生이本校를引受經營中經濟難에 逢着되여만흔波瀾과曲折의風說이流布되었오나 一般社會先覺有志와學父兄母姉卒業生諸氏의 校生諸君의多大한支援으로今般軍政大法院司 法部에法人就任登記가完了되였기玆에仰告하오 니倍舊庇護惠眷之澤만바라는바淺薄微力이나마 粉骨碎身誠意및責任에當할가하나이다

京城府鍾路區壽松町一〇八

(財團法人朝鮮電氣工業學校)
弘益電氣中學校
設立者兼理事長 張鍾亮 (舊 判 甲)

京城大學附屬醫院 高等看護學校生徒募集

應募資格 二十五歲以下의初級中學校修了한女子
願書期日 八月二十一日까지
試驗期日 八月二十二日부터三日間
試驗科目 國語、數學、英語、常識
募集人員 百名

京城大學附屬醫院

醫師 聘診俟待함 詳細面談
敦岩町三仙橋前 東洋醫院

蜂蜜·集礎 販賣絕對不良品質保證
京城北阿峴町一의二三 朝鮮蜜蜂園

해방일주년기렴

協進印刷公司 (舊行政學會印刷所)
京城府南米倉町一五九番地
代表 金慶洙
電話本局② 二八一八·三五三三番

朝鮮海陸運輸株式會社
서울市中區古市町十二番地
取締役社長 黃漢喆
電本②五一〇